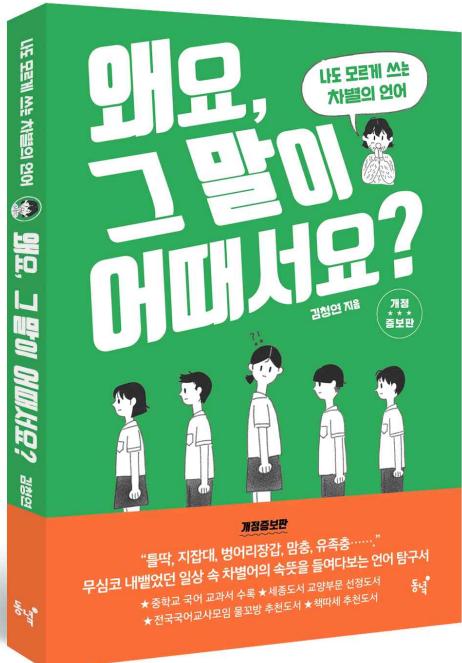


##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나도 모르게 쓰는 차별의 언어



#청소년교양 #일상에숨은차별어찾기 #언어감수성훈련 #예민해도괜찮아

### 책 소개

고정관념 + 편견 + 혐오 + 습관 = 차별어의 탄생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차별의 언어를 찾아보는 시간!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와 습관이 뒤엉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차별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틀딱, 명품 몸매, 흑형, 지잡대, 사내놈, 주인아줌마, 벙어리장갑 같은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듣고 말한다. 장난삼아, 악의 없이, 혹은 그저 늘 써 왔다는 이유로 내뱉는 말들이지만, 그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차별의 칼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그렇게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차별의 언어를 하나씩 발견하고, 그 말이 품고 있는 의미와 속뜻을 짚어보는 언어 탐구서다.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는 '차별'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선언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대신 숨은 그림찾기처럼 일상의 장면들을 따라가며,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 놓는다. 평범해 보였던 표현이 왜 문제인지, 그 말이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차근차근 살피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단단한 언어 감수성을 기르게 된다.

교육 매체의 취재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김청연 저자는 사람들을 만나며 "뭔가 어색한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쓰이기 시작했을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써도 되는 표현일까?"라는 질문이 남았던 말들을 꾸준히 기록해 왔다. 그렇게 모인 표현들은 나이, 장애·인종, 경제 조건·지역, 학력·학벌·직업, 성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었고, 그 기록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편견과 혐오,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 책은 그 오랜 기록과 고민의 결과물이다.

저자는 이 작업을 거치며 이전보다 더 예민해지고 피곤해졌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타인과 사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고, 조금 더 넓어졌다고 고백한다. 무작정 '차별에 반대한다'고 외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어떤 차별이 어떤 말의 형태로 숨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에 소개된 일화들은 모두 저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기록해 온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 코피루와 그림작가의 네 컷 만화가 더해져, 각각의 상황을 명료하고 재치 있게 보여 준다. 덕분에 독자들은 무거운 주제를 부담 없이 따라가며, '읽는 재미'와 '생각하는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 관련 교육 과정

### 국어

- [6국02-01] 글의 구조를 고려하며 주제나 주장을 파악하고 글 내용을 요약한다.
- [6국02-03] 글이나 자료를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6국03-04] 독자와 매체를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표현하며 글을 쓴다.
- [6국03-06] 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글을 독자와 공유하는 태도를 지닌다.
- [9국02-01] 읽기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며 사회적 독서에 참여하고 사회적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 [9국02-03]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에 나타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며 읽는다.
- [9국02-08] 자신의 독서 상황과 수준에 맞는 글을 선정하고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읽는다.
- [9국03-04]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며 주장하는 글을 쓴다.
- [9국03-07]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며 글을 쓴다.
- [9국06-06]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의 공정성을 평가한다.

### 사회

- [4사03-02]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와 문제를 분석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9사(일사)01-03]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차별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는 시민의 자질에 대해 토의한다.
- [9사(일사)12-02] 오늘날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러한 사회문제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한다.

### 도덕

- [6도02-02] 편견이 발생하는 이유를 탐색하여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다양성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실천 방안을 탐구한다.
- [6도03-01]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길러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함양한다.
- [6도03-02] 정의에 관한 관심을 토대로 공동체 규칙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직접 공정한 규칙을 고안하며 기초적인 시민의식을 기른다.
- [9도01-04]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탐구하고, 도덕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일상의 도덕 문제들에 도덕적 추론을 적용할 수 있다.
- [9도03-01]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도덕적 이유를 정당화하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기른다.
- [9도03-02]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타문화·타종교·타인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에 근거하여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기른다.

## 브레인 스토킹하기

### 1. 이 책의 제목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인가요?

- 궁금하다
- 찔린다
- 웃기다
- 불편하다
- 잘 모르겠다

### 2.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룰 것 같나요?

- 우리가 자주 쓰는 말
- 차별하고 혐오하는 말
- 장난처럼 넘긴 말
- 학교에서 흔히 쓰는 말
- 국어 문법

### 3. 표지 속 인물들은 어떤 느낌인가요?

- 나랑 비슷하다
- 평범하다
- 뭔가 불편해 보인다
- 무표정하다
-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 4. 이 책은 어떤 책일 것 같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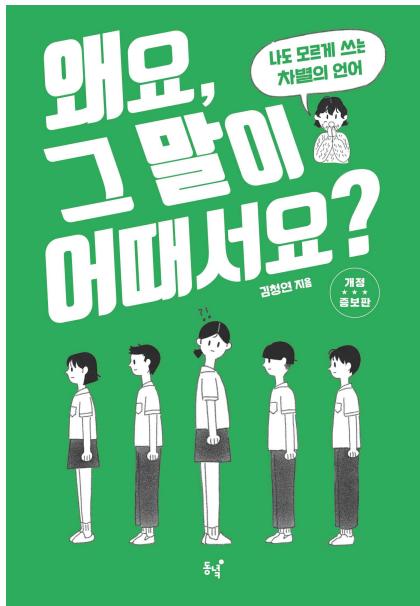
- 혼내는 책
- 설명해 주는 책
- 같이 생각해 보는 책
- 내 편이 되어 주는 책
- 잘 모르겠다

### 5. 이 책을 읽기 전, 내 마음은?

- 솔직해지고 싶다
- 괜히 긴장된다
- 재미있을 것 같다
- 별 기대 없다
- 궁금하다

[독서 전]

책 표지 보며 내용 예측하기



1. 가운데 친구를 제외한 네 명의 친구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서로 사이가 아주 좋다
- ②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 ③ 줄을 서 있는 장면이다
- ④ 우연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2. 가운데 있는 한 친구는 왜 다른 네 명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까요?

- ① 실수로 방향을 잘못 섰다
- ② 차별적인 말을 쓰면 왜 안 되는지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 ③ 눈에 띄고 싶어서이다
- ④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부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

이 책의 부제는 '나도 모르게 쓰는 차별의 언어'예요. '차별'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자유롭게 5가지를 적어 보세요.

차별의 반대말 5가지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차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5가지

1. 소수자

2. 어린이

3. 노키즈존

4. 장애인

5. 외국인 노동자

'차별'의 반대말 5가지

1. 공존

2. 반차별

3. 평등

4. 사랑

5. 화합

[책 속으로]

| 1장 : 한 끗 차이로 생겨나는 차별의 언어 |



청소년이 하고하는 시간대 버스를 탄 두 청년의 대화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청소년들을 비하하는 단어가 있지. 맞아! '급식충'이라는 말. 급식충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다른 불편한 표현도 많이 보이지. "요즘 급식충들 얼마나 무서운데!" "뭐라고 했다간 큰일 당할 수 있어." "땀 냄새도 많이 나는 것 같아." 등이 그럴 거야.

'급식충'은 '급식'에 '벌레 충(蟲)' 자를 붙인 말로, 풀어 보면 '급식을 먹는 벌레'라는 뜻이야. 급식을 먹는 중·고등학생들을 비하하는 말로 알려져 있지.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을 부를 때 벌레라는 뜻의 충(蟲) 자를 붙이는 일이 많아졌어. 사람을 벌레에 빗대 극도의 혐오와 경멸을 드러내는 거지. 그런데 학교에서 먹는 급식에 벌레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뭘까?

사실 급식을 먹는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들 말고도 많아. 군인이 대표적이지. 직장인들 중에서도 급식을 먹는 이들이 있어. 그럼에도 청소년에게만 급식이라는 단어를 붙여 비하 표현을 쓰는 것에 중·고교생, 즉 청소년을 유독 낚춰 보는 우리 사회 특유의 시선이 담겨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

"애들은 밥만 잘 먹으면 아무 소리 안 해."

혹시 이런 말 들어 본 적 있어? 아이들을 두고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지. 얼핏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먹거리 문제만 해결해 주면 모든 불만이 해결될 정도로 아이들은 단순하고, 미성숙하다."는 시선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급식충'은 '먹을 것만 밝히는 단순하고 미성숙한 벌레들'이 되는 셈이야. (16~18쪽)

1. 위의 본문을 잘 읽고,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급식충'의 정의를 고르세요.

- ① 급식을 먹는 청소년을 친근하게 부르는 별명
- ② 급식을 먹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표현
- ③ **급식을 먹는 청소년을 벌레에 빗대어 비하하는 말**
- ④ 급식 제도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

2. '급식충'이라는 표현이 왜 문제일까요?

- ① 급식이라는 제도가 위생적이지 않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
- ② 청소년들을 비하하고 낚춰 보는 시선이 담겨 있어서
- ③ 군인과 직장인도 급식을 먹기 때문에 혼란을 주어서
- ④ 요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표현이어서

3. "애들은 밥만 잘 먹으면 아무 소리 안 해"라는 말과 '급식충'이라는 표현이 공통으로 드러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 ① 청소년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 ② 청소년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
- ③ **청소년은 단순하고 미성숙하다는 편견**
- ④ 급식이 학교생활에서 중요하다는 점

4. '급식충'이라는 표현 대신 비하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써 주세요.

청소년,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학생, 중·고등학생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십대

5. 아무 생각 없이 쓰거나 들었던 말 중에는 누군가를 한쪽으로 몰아가거나, 기준 밖으로 밀어내는 표현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하며 더 나은 표현으로 바꿔 보세요.

차별 표현	이렇게 바꿔 봅시다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자애치고 운동 잘하네	너 운동 진짜 잘한다	성별을 기준으로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을 그대로 인정한다
외국인이라서 한국어 못할 줄 알았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네	국적과 언어 능력을 자동으로 연결짓지 않는다
장애가 있는데도 잘했네	정말 성실하게 준비 했구나	'그런데도'라는 비교를 없애고 과정 자체를 존중한다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	누구나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 거야	세대를 하나의 성격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6. 급식충, 맘충, 설명충, 진지충... 우리는 왜 사람에게 '벌레 충자'를 붙일까요? 아래 질문에 답하면서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답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급식충, 맘충, 설명충, 진지충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 웃기다
- 불쾌하다
- 상대를 무시하는 느낌이 듦다
- 다들 쓰는 말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람에게 '벌레 충자'를 붙이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

- 상대를 보호하려고
- 상대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느껴서
- 상대를 무시하고 하찮게 만들고 싶어서
- 다들 쓰니까 별생각 없이

사람을 사람이 아닌 벌레로 부르면, 결국 누구를 무시하고 작게 만들까요?

- 그런 말을 듣는 사람
- 그런 말을 하는 사람
- 둘 다
- 아무도 아니다

## | 2장: 오해와 이해 사이에 멈춰서서 |



지영이는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 아버지가 암 투병을 하다 돌아가신 탓에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지금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지. 대화를 통해서도 느껴지지만 담임 선생님은 아끼는 제자인 지영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학금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직접 신청까지 하셨어. 며칠 뒤, 장학금 수여 행사는 학교 강당에서 진행했어. 그런데 행사장에 걸린 현수막이 지영이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거야. 많이 들어 봤지만, 그 뜻은 정확히 몰랐던 단어가 적혀 있었거든. 바로 '결손 가정'이라는 단어. 선생님과 이야기 나눌 때도 이 말을 스치듯 들었던 게 어렵뜻이 떠올랐어.

혹시 결손 가정이라는 말 들어 본 적 있어? 처음 들어 본다고? 아니면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자세한 뜻은 모른다고? 지영이처럼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안 계시거나 두 분 모두 안 계실 때 이를 두고 결손 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말이 뭐가 문제인 걸까?

자, 여기서 한자 공부도 할 겸 결손 가정이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볼까? '결손'의 한자를 풀어 보면 '이지러질 결(缺)' 자에 '덜 손(損)' 자를 써. 여기서 '이지러지다'라는 말은 어딘가 한 귀퉁이가 떨어지거나 찌그려져 있다는 뜻이지. 쉽게 말해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국어사전을 한번 펼쳐 볼까? 사전에 따르면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순화한 표현으로는 '모자람'이라고 하고.

위낙 흔히 쓰이는 말이라 잘 모를 수 있지만, '결손 가정 아이'에는 '불완전한 가정의 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생각해 보자. '불완전한 가정'이라는 것은 '완전한 가정'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완전한 가정이란 뭘까?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면 완전한 가정일까? (52~54쪽)

1.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손(缺損)'이라는 말의 뜻을 써 보고, 단어에 대한 느낌도 써 보세요.

결(缺) : 이지러지다

손(損) : 덜하다, 부족하다

이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느낌 3가지

( 부족함 ) ( 문제 ) ( 불완전함 )

2. 다음 보기 중 '가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아닌 '평가나 낙인'처럼 느껴지는 표현 두 가지를 고르세요.

- ① 한부모 가족
- ② 조손 가족
- ③ 결손 가정
- ④ 비정상 가정

답을 고른 이유를 한 줄로 써 보세요.

**가족의 형태를 설명하기보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가족인 것처럼 판단하고 낙인을 짹는 느낌이 들어서이다.**

3. 아래 문장을 잘 살펴보고 O / X 표시를 해 보세요.

- ① 부모와 자녀가 있어야 '완전한 가족'이다. (O / X)
- ② 한부모 가족에서 큰 아이는 불행할 것이다. (O / X)
- ③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가족의 형태다. (O / X)
- ④ 아이가 없는 부부도 가족이다. (O / X)

4. 우리 주변에는 어떤 가족 형태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아는 대로 적어 보세요.

- ① 한부모 가족
- ② 조손 가족

- ③ 동거 가족
- ④ 비출산 부부
- ⑤ 비혼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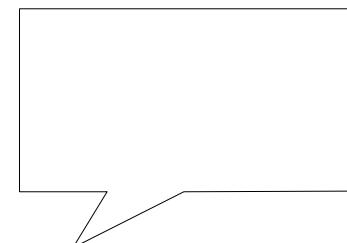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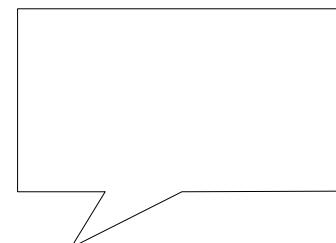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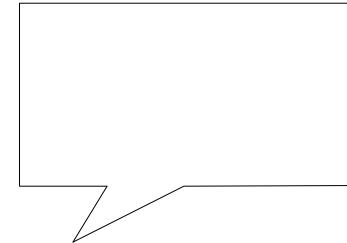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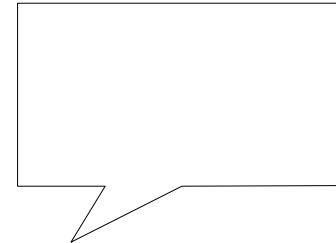
7. '결손 가정'은 차별적인 표현입니다. 이 단어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장학금 수여식의 현수막 문구를 새로 만들어 보세요.

## 미래 장학금 수여식 2026년 5월 5일 동녘중학교

| 3장: 이상한 정상 이름을 찾아서 |

1. '남자니까, 여자니까, 어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처럼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말풍선에 그 말들을 적어보세요.

예) "남자는 울면 안돼."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2.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 화남
- 슬픔
- 답답함
- 무덤덤함
- 의아함

- 당황스러움
- 속상함
- 두려움
- 억울함
- 기타 \_\_\_\_\_

3. '여자답게' '남자답게'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나요? 간략하게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여자답게', '남자답게'라는 말은 성별에 따라 꼭 그래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 놓은 말인 것 같다. 사람마다 성격이나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내 모습이 틀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보다 그냥 '자기답게'가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4. 다음 문장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꿔 보세요.

"그건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야."

→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남자는 집안일 못해."

→ "집안일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여자애가 왜 그렇게 씩씩해?"

→ "참 씩씩하네."

"남자는 울면 안 돼."

→ "누구나 울어야 할 때 눈물이 나는 거야."

5. 아래 문장을 읽고, 사실에 가까운 말인지 고정관념인지 표시해 보세요.

남자는 원래 힘이 세다. (사실 / 고정관념)

힘이 센지 아닌지는 개인차다. (사실 / 고정관념)

육아는 여성이 더 잘한다. (사실 / 고정관념)

남성의 육아 휴직 사례가 늘고 있다. (사실 / 고정관념)

6. 아래 사례는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왜 그런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간단히 써 보세요.

- ① 육아하는 아빠
- ② 힘이 센 여자 친구
- ③ 요리 잘하는 남자
- ④ 집안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
- ⑤ 감정을 잘 표현하는 남동생

이 사례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 우리가 평소에 성별에 따라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 성별과 상관없이 각자 잘하는 일과 선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7.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견과 혐오, 선입견을 타파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제목과 구호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제목]

**존중하는 말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구호]

**"가볍게 던진 말 하나가  
누군가에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 4장: 세상의 중심은 이미 정해져 있을까 |

1. 아래 4컷 만화를 잘 살펴보고 뒷 부분을 4컷 만화로 그려 보세요.



- 우리가 ‘대학교’를 떠올릴 때 드는 생각들을 위의 그림에 전부 적어 봅시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넓은 자리에, 그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좁은 자리에 작성해 주세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2. 내 머릿속 대학교의 이미지는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중복 선택 가능)

- ① 부모나 어른들의 말
  - ② 학교 선생님의 말
  - ③ 친구들의 말
  - ④ 드라마·유튜브·뉴스
  - ⑤ 입시 사이트·순위표

3. 서울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나요? 내가 떠올린 대학 중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몇 개였나요?

- ① 대부분
  - ② 절반 정도
  - ③ 거의 없음

4.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복 선택 가능)

- ① 좋은 대학 = 서울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
  - ②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 ③ 지방 대학 이야기는 잘 접해 본 적이 없어서

- ④ 지방 대학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⑤ 그런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5. 다음 표현을 읽고, 각 단어가 주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에 V 표 하세요.

- ① 뚱통학교  
 중립적  존중  비하

- ② 지잡대  
 중립적  존중  비하

- ③ ○○대학교 ○○학과  
 중립적  존중  비하

6. 다음 문장을 읽고, 비하나 편견이 없는 방식으로 대답을 써 보세요.

- ① “걔 지잡대래.”

○○ 대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되잖아.

- ② “인서울 못 하면 인생 망한 거지.”

인서울 꼭 해야 돼?

- ③ “지균충이라 실력은 별로일걸?”

지역균형 전형으로 들어온 거랑 실력이 무슨 상관이야?

## | 5장: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회를 꿈꾸며 |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서 나오며 기자들을 마주한 장면이야. 많은 이들이 뉴스를 보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등 피해자를 위로하고, 응원했어. 반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 등에 대해 “저래도 되나?”는 의문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어. 만화 속 엄마처럼 말이지.

“피해자가 옷도 참 화려하게 입었네. 저렇게 꾸밀 정신이 있나.”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너 피해자 맞아?”라고 말하는 걸로 들리기도 하지. 엄마의 머릿속엔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 보여. 모름지기 피해자라면, 피해자답게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말이지.

이처럼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식의 편견, 고정관념을 두고, ‘피해자다움’이라고 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왜 그런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죠?” “피해자라면서 왜 피해 직후 바로 대처하지 못했죠?” “피해자면서 어떻게 다음 날 직장에 지각도 안 하고 출근을 했죠?” 하는 이런 질문들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질문에 속하지. (156~158쪽)

1. 위의 글에서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두고 “피해자 맞아?”라고 묻는 태도를 짚고 있어요. 이렇게 묻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태도
-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책임을 돌리는 태도**
- 사건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태도
- 가해자의 잘못을 분명히 하려는 태도

2. 글에서 말하는 ‘피해자다움’이 문제가 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서
- 피해자를 특정한 모습 안에 가두기 때문에**
- 사건의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3.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 “많이 힘들었겠다.”
- “어떤 도움이 필요해?”
-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
-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곁에 있을게.”

4. 다음 중 책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사건명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 피해자의 아픔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할수록 더 빨리 극복될 수 있다.**
- 사회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면,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
- 범죄나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언론은 책임 있는 태도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5. 이 글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 피해자는 항상 슬퍼해야 한다
- 피해자는 사회가 정한 모습대로 행동해야 한다
- ‘피해자는 이해야 해, 저래야 해’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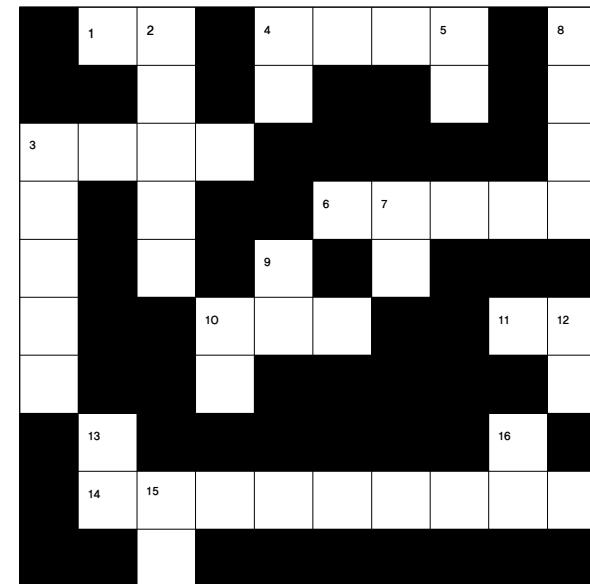
6. ‘5장’에 나온 단어들로 십자말풀이를 해 봅시다.

<가로 열쇠>

1. 악한 성질
3.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
4.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찾아낸 개인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는 일
6.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식의 편견, 고정관념
10.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11. 큰 사고나 재난 등으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말
14. 사람이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고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질환

<세로 열쇠>

2. 성범죄 피해자가 경험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소외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차별적 용어
3.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회에 이 용어로 개정하자고 법안을 발의했음
4.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함
5.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냈
7.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읽힌 일을 잘 처리함
8. 부끄러워하는 느낌이나 마음
9.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음
10. 실제 이름이 아니라 임시로 지어 부르는 이름
12.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13.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15. 피해를 입은 흔적
16. 어떤 사건이나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현상, 인물 등이 세상에 나옴



십자말풀이 정답

